

뮤지컬 셋별 우산초교 스타킹

원주지역 어린이날 기념행사서 창작 뮤지컬로 우승

원주 우산초등학교(교장 : 이강주) 뮤지컬부가 지난 5일 원주 따뚜공연장에서 열린 어린이 스타킹대회에서 우승했다.

원주지역 28개 팀 중 예선을 거쳐 올라온 11개 팀은 노래 춤 벨리댄스, 현대전화 연주 등 평소에 가지고 있던 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뮤지컬부 학생들은 직접 만든 ‘추억을 아삭아삭’ 중 ‘학교 가는 칸타타’와 ‘부모의 마음’을 공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추억을 아삭아삭’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고민과 추억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은 작품이다.

연출자 박찬수 교사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연극의 줄거리를 정하고 대본을 만들었다. 음악은 뮤지컬 아이 러브유에서 도입했다. ‘추억을 아삭아삭’은 오는 7월 무대에서 공연될 전망이다. 한편 박 교사는 6학년 누리반



◇원주 우산초교 뮤지컬부 학생들은 지난 5일 어린이 스타킹대회에 참가해 ‘학교 가는 칸타타’ 등을 공연해 우승했다.

학생들과 함께 ‘시끌벅적 6누리 forever episode’ 뮤지컬을 창작 중이며 올해 11월 인도국제아동연극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원주 우산=마예성기자



◇원주 성북초교는 지난 8일 성북 한마당 큰잔치를 열었다.

성북초교 한마당 큰잔치

원주 성북초등학교(교장 : 박희영)는 지난 8일 성북 한마당 큰잔치를 열었다. 학생들과 한우팀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경기는 한우팀이 승리했다. 특히 무용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원주 성북=이승희기자



◇원주 한솔초교는 지난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했다.

한솔초교 스승의 날 행사

강릉 한솔초등학교(교장 : 김진갑)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과 제자가 하나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는 물론 피구 축구 등 체육 행사를 진행했다.



봉화산 정화활동 평원초교 5학년 학생들은 최근 봉화산 정화활동을 펼쳤다.

전국 학생 기초질서문화대전 원주 평원초교 이현준 군 대상

2009 전국 학생 기초질서 문화대전에서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 이기웅) 6학년 이현준 학생(사진)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경찰청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학생이 참가해 총 1만 여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이현준 학생은 오는 27일 서울 경찰청에서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받는다.

이현준 학생은 “평소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책을 읽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원주 평원=김준혁기자

무실초교 한마음 큰잔치

원주 무실초등학교(교장 : 최돈성)는 지난 8일 ‘무실 한마음 큰잔치’를 열었다.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진행된 운동회는 백군이 승리했다. 이날 학생들은 틈틈히 연습한 학년별 무용과 체육 실력을 학부모에게 마음껏 뽐냈다.

이날 행사는 어머니와 함께 달리는 계주로 막을 내렸다.

원주 무실=송유리기자



자연 속에서 휴식같은 잔치 즐긴 하루

임광순 학부모 (홍천 화계초 1학년 강지원 어머니)



간을 만든 춘천시에 감사하고 멋진 행사를 제공한 강원일보사에 감사한다. 내년에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야겠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무려 4일의 휴일이 다가왔다. ‘6살, 8살 어린 새싹들에게 엄마가 무얼 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강원일보사에서 마련한 제2회 강원어린이 한마당 큰잔치에 참가하기로 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을 컷등으로 들고 행사장에 도착해 보니 눈 안에 들어온 풍경은 환상적이었다. 무대 오른 쪽을 짙게 채운 강 위에 오리배가 웃음처럼 떠다녔다. 멀리 산책로가 보이고 더 멀리엔 산이 병풍처럼 감싸안은 모습, 아이들과 함께 온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기쁜 모습이다. 갖가지 삶의 지친 숙제는 잠시 접은 듯 휴식 같은 잔치를 즐겼다.

누워 타는 자전거도 타 보고, 책버스에서 책을 선물 받았다. 바람을 넣어 만든 풍선 공전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니 함께 올라 가고 싶었다. 많은 진행사 관계자들이 친절하게 여기저기서 아이들과 함께했고, 다른 행사처럼 파는 사람에 구경 온 사람에 북새통을 이룰 거라는 내 예상은 말끔히 지워졌다.

둘째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꼭 타서 집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재주도 없는 아이가 무대 위로 올라가 얼굴 표정으로 춤을 춘 덕분에 크레파스를 선물로 받았다.

갑자기 그동안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나 뒤돌아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쳤던 비도 또 내렸다.

행운권 추첨에서 받은 자전거를 버스에 실어 홍천까지 가져왔더니 남편이 겨우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꺼내주는 것만으로도 투덜거렸다. 하지만 이 투덜거림도 즐겁게 들린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